

# ‘미래’ 택한 노사...광주 자동차 산업계 ‘꽃길’ 달린다

###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기아, 10년만에 파업 없이 잠정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던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계가 ‘가시밭길’을 벗어나 ‘꽃길’을 걷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측과 임단협 갈등을 빚으며 검거 농성까지 벌였던 금호타이어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고,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측과 교섭에 나섰던 기아도 10년 만에 파업 없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주력 산업계의 임단협 진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광주공장 과속, 평택공장 재직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26일 오전 11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가결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간 잠정 이었던 우리사주 출연과 관련, 우리사주 분배 250억원을 출연하고, 잔여금 201억원에 대한 지급 방안은 노사가 세부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임금 동결과 국내공장 고용안정 및 베트남공장 증설 관련 미래위원회 추진, 광주공장 이전 협의체 구성,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5일 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과 국내공장 고용안정 및 미래비전, 광주공장 이전, 우리사주 분배(사측 250억원 출연), 하계 휴가비 인상(20만원) 등을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51.6%가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수정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7일 광주공장 크릴롤 점거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8일 곡성공장에서도 크릴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20일 잠정합의안 부결 21일 만에

재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이번 임단협 최종 가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기아 노사 역시 지난 24일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3차 본교섭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가 10년 만에 처음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5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 특별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주식 13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 위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강도 높은 교섭을 진행해 예년보다 교섭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노사는 ‘미래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 산업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29조원을 투자하고, 미래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비한 친환경차 전용공장 전환, 다품종 생산설비 투자 등 국내 오토랜드의 미래 방향도 제시됐다.

이밖에 복지환경 개선에도 합의해 첫차 구매 시 직원용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직과 연구직의 평일 연장근로 기준 시간 변경, 우리사주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측은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친환경 기업’ 기아 알린다

기아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참가해 별도 기업 부스를 마련, 광주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전시했다. 기아는 자동차 전문가 ‘카마스터’가 상주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기아의 친환경기업의 이미지를 알리고, 우수기술과 성능을 홍보할 예정이다. (기아 제공)

## 저축은행도 가계대출 규제 “연봉 한도”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런 내용을 당

부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지난해부터 예고되자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상호

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액은 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120억원)보다 141.7%(170억원) 급증했다. 2분기 기준 광주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2019년 89억, 2020년 120억, 2021년 290억원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2분기 신규 대출이 전분기보다 55억이나 감소한 데 반해, 올 2분기 신규 대출은 2억원으로 28.5배 가량 급증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은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 청년 채용 유망 중기에 인당 1140만원 지원

기술 혁신과 성장 전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당 최대 11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924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과 성장 가능성이 커 정부 부처의 포상과 인증 등을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이 만 15~34세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은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만명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6.81 (+8.51)
↑ 코스닥	1017.78 (+4.60)
↓ 금리(국고채 3년)	1.435 (-0.003)
↑ 환율(USD)	1168.10 (+2.50)

## “여수~남해 해저터널·6개 지구 선정 환영”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1924원)이다.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6개 지구(1조6104억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설(7.31km·6824억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신설(10.41km·3827억원), 고흥 영남-팔영 개량(14.0km, 691억원), 신안 신석-단국개량(9.12km·582억원)의 4개 국도사업(1조

또 장성 동화-서삼 신설(5.98km·1325억원), 나주 금천-도암 신설(12.0km·2855억원) 등 2개 국지도 사업(4180억원)도 포함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역 주요현안 사업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것은 지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의 상승효과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00여 회원사를 비롯한 지역건설업계는 지역 인력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대학등록금 내고 경품 받자

광주은행 내달까지 행사

광주은행은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을 광주은행을 통해 납부한 대학(원)생 총 152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은행 영업점·인터넷·자동차기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나 모바일앱에서 행사 응모하면 된다.

경품행사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되며 1등 당첨자(2명)에게는 아이폰 또는 갤럭시,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탭이 주어진다.

추첨 결과는 오는 10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b>총 계</b>		<b>93</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